

능동칼럼

새 光化門을 보며



權 在 琮
주간

‘서울사료총서’를 보면 궁궐지 경복궁편 첫머리에 ‘景福宮在京城之中경복궁재경성지중洪武二十七年홍무이십칠년太祖即位三年甲戌태조즉위삼년갑술定都漢陽정도한양先建宗廟선건종묘次營宮室차영궁실命鄭道傳南閣李穰명정도전남은이직...’이라 하고 있는데 이를 옮겨보면 ‘경복궁은 서울성중에 있다. 홍무洪武(명태조연호) 27년, 태조 즉위 3년(1395) 갑술에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먼저 종묘를 짓고 이어 궁실을 영건했는데 정도전鄭道傳、남은南閣、이직李穰에게 명하여...’라 하는 내용이다. 이어 고려 충숙왕忠肅王(1294~1339) 때 지은 남경南京의 이궁離宮(지금 서울 종로구 궁정동宮井洞 일대)이 협소하여, 새 왕조가 해산亥山(북악산北岳山)을 주산主山으로 삼고 북북서에서 남남동을 바라보는 ‘임좌병향壬坐丙向’의 자리에 새로이 궁궐을 영건하였으니 이가 지금의 경복궁이다. 이 역사役事は 이해 12월 3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9월에 낙성했는데 청성백靑城伯 심덕부沈德符가 그 총역總役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태조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도성 축조의 역할을 여러 부서로 나누어 공기工期를 정하여 능력에 따라 이를 헤아려 맡기고는 결과를 논하여 상벌을 주었다 하고 있다. 요즘으로 치면 공사를 실명제로 시행한 셈이다. 예컨대 종묘를 짓고 신주를 옮기는 이 안고유移安故由는 예천백醴泉伯 권중화權仲和에게 맡긴 게 그와 같은 것인데 이는 후일 남한산성의 축조나 수원의 화

성 건설 등으로 이어졌다. 태조는 다시 정도전에게 각궁전의 이름을 짓게 하니 시경詩經의 ‘군자만년君子萬年’ 개이경복介爾景福이란 글귀에서 경복景福을 따 새 정궁을 경복궁景福宮이라 하고 사방四方의 길문에 이름을 붙여 남은 광화문光化門, 북은 신무문神武門, 동은 건춘문建春門, 서는 영추문迎秋門이라 했다. 정문 광화문은 석축 기반부에 세 개의 홍예虹霓가 있게 하고 그 위에 목조 2층 누각을 세워 ‘光化門’ 현판을 가로로 현액하고 문앞 양쪽에 한 쌍의 해태를 두고 월대도 조성했다. 석축부의 세 개 홍예는 3을 좋아하는 우리의 민족정서를 표현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같은 삼문三門의 중앙문은 임금만이 다니는 어도御道の 연결이고, 좌우의 동서협문은 신자의 것으로 동협문으로 들어와 서협문으로 나가는 동입서출東入西出제로 되어 있다. 이 동입서출제는 궁궐 뿐이 아니라 문묘文廟를 비롯한 모든 원묘院廟가 같은 체제이고, 월남의 고도 후에Hue의 왕궁이나 묘역 및 사당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을 비롯한 일본 등 유교 문화권에 공통하는 일맥이다. 또 그 홍예의 천장에는 주작朱雀을 그려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 상서로움이 누리에 퍼지도록 하였다. 문이 얇은 좌향은 근정전勤政殿과 일직선으로 도성 남쪽의 관악산과 마주하도록 했고 문앞을 지키는 두 마리의 해태 석상은 관악산이 불의 방위인 남쪽에 있으면서 물이 없는 화산火山이라 그 화기를 막으려는 뜻에서 둔 것이었다. 이처럼 각별하고도 세세한

의미를 담고 있는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으로서 ‘제왕의 큰덕이 온 나라를 비추어 치화를 이룬다’는 광화光化의 상징으로 우뚝 솟아 한양 서울을 600여년 동안 지켜왔다.

오랜 세월 이러한 광화문은 서울 장안을 에운 산하의 따스한 이내와 드높이 파란 하늘을 몸받으며 태평할 때도 있고 풍우와 설한에 닥치는 수난을 인고로 버티기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모습도 불타고 중건되고 다시 훼손되었다가 다른 형상으로 가조되었던 것이 우여곡절 끝에 원형으로 중건 복원되어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우리 눈앞에 현현하였다.

광화문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왕이 도성을 버리고 파천의 길에 오르자 적군도 아닌 자국 백성의 손에 화를 당해 소실되었다. 문루가 타서 석축만 남은 광화문은 그 후 선조 39년(1606), 현종 연간 및 영조 48년(1772) 등에 복건 논의가 있었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863년(고종 2년)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의 경국지대역사를 벌이면서 중건되어 실로 소실된 지 273년 만에 웅자를 드러냈었다. 이렇게 힘들여 중건한 광화문은 또 일제의 침략으로 훼손되어 경복궁의 동쪽 원장으로 좌천되었다.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남산에 신궁神宮을 세우고 1926년 총독부 청사를 경복궁의 정전을 가로막아 세우면서, 중심축에서 3.7도 틀어 남산의 조선신궁과 마주하도록 하고 광화문이 그 시야를 가린다 하여 헐어 없애려다 반대가 거세자 궁궐 동쪽 건춘문 북쪽으로 파천시켰던 것이다. 엉뚱한 자리로 밀린 광화문은 다시 동쪽상간의 6·25사변 전화에 소진되었다. 임란에 이은 두 번째의 이른바 회록지재回祿之災였다.

1968년에 민족정기를 되찾으려던 대통령의 뜻으로 광화문은 우선 제자리 복원이 이루어졌다. 급한 대로 철근 콘크리



삼가 冥福을 빕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거주 청암靑岩 권재선權在宣(북야공파 판서공·야옹공계 시조후 35세)씨가 숙환으로 2010년 9월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의료원에서 향년 77세

트 구조로 시공한 일종의 가조물假造物이라 할 수 있었으나 그나마 어렵던 60년대로서는 경국의 역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과거의 도시계획과 구조적 획을 같이 하다 보니, 좌향은 일제의 총독부 건물인 중앙청의 정문이 있던 자리와 방향에 이를 맞추게 되어 경복궁의 원래 중심축과 어긋나고 자리도 원위치에서 북으로 11.2m, 동으로 13.5m 옮겨 앉는 바 되었다. 그래도 원위치를 아지 못하는 일반 세인이 보기에는 그저 광화문이 다시 현현되어 경복궁 앞에 버젓이 서 있는 것만으로 뿌듯한 마음이었다.

이제 한국은 세계 7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여 지구촌 어느 나라도 괘시하거나 얹보기 어려운 지경에 있다. 안에서는 여러 ‘꾼들’이 자고 깨면 험담으로 나라와 정부를 두들기고 비하하기 영일이 없지만 바깥에서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뤘대서 칭찬과 시기가 복합된 소리를 던지고 있다. 우리가 수십년을 두고 ‘중앙청’이라 부르던 조선총독부 건물

로 별세하여, 9월 30일 발인, 충남 세종시 은하수공원묘역에 안치되었습니다. 1934년 4월 12일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에서 나서 예천농고·경북대 경제과를 졸업, 농촌지도소 재직시 대통령 표창 등을 받고 노동청에서 공직을 마친 고인은 노인성 숙환으로 자택 가료중 급성 폐렴으로 응급 처치를 받다 운명하였습니다. 유족은 미망인 연안延安 송정자宋政子, 아들 LG화학기술연구소 부장 원종元鍾, 자부 해주 최대희崔大姬, 딸 인순仁琬·우리은행 차장 인박仁璞·인애仁愛, 사위 전주 이영철李永喆·한양 조종우趙鍾佑·SKC 부장 달성 배근택裴根澤, 손자 해성海成, 손녀 해완海完입니다.

을 철거하자면 나라 예산 1년치의 절반이 든다던 시절이 있었다. 그게 사실은 엇그제만 같다. 그래서 그 중앙청 석조전을 헐어내고 경복궁의 제 모습을 복원하는 역사 따위는 백일몽과 같아서 역대 정권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10여년 전 헐어내 버리고도 나랏곳간이 거덜나지 않더니 이제는 여러 고증을 다 하여 겨레의 정체성을 되살리면서 삼척 백두대간에서 골라온 우리의 황장목黃腸木으로 광화문을 버젓이 복원하여 그 웅자를 드러내 놓았다. 7천만 겨레가 춤을 추며 그 동우棟宇에 비치는 햇살은 더욱 따스하지 아니하겠는가.

우리는 역사를 돌이키며 탄식하는 일이 많다. 탄식에는 감복해서 저도 모르게 발하는 긍정의 차탄이 있고, 어이가 없어 터져나오는 허탈의 탄식이 있다. 오늘의 일이 역사가 되어 후손에게 비칠 때를 생각하면 그들의 입에서 어떤 탄식이 나올 것인가가 궁금하지 않은가. 후래자가와後來者可畏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安東權氏耆老會

愛不可愛 :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恕不可恕 :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며
犯而不校 : 뺨박받아도 변명하지 말라

회장	權寧吉
명예회장	權寧翼
상임고문	權炳洪
수석부회장	權貞澤
상임부회장	權琪奉
부회장	權俊植、權晉澤、權五泌、權泰永、權度延、權純八、權五逸、權赫彩
감사	權虞植、權五相
운영위원장	權炳淳

9면에서 계속

명유名儒이고 낙하洛下(낙동강 지역)의 사우土友가 일찍이 존경한 이라 하였다.”

이우당 종택宗宅은 연륜 370의 고택古宅으로서 안동 시내에서 동쪽 영덕 방향으로 12길로 쭉 떨어진 임하댐 아래의 천전리川前里, 내앞마을 건너 반변천변에 있다. 마침 행사가 열릴 때 문화재로서 보존보수를 하느라 솟을대문을 중건하는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이 종택은 이우당이 별세하기 11년 전인 인조 18년, 1640년에 건립한 것이다. ㄱ자형의 안채와 사랑채,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현재의 사랑채 앞에 대문간채와 중간 문간채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을, 지금 대문간채를 중건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채는 안채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책방과 통하게 되어 있다. ㄱ자형의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6칸인데 대청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있으며 왼쪽이 안방이고 그 앞에 부엌과 아랫방, 아랫부엌이 있다. 전체적으로 집터의 형세에 따라 북동향으로 지었으나 대청을 북쪽에 두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온돌은 남쪽으로 아궁이를 두어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당은 본채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담

장과 대문이 딸려 있다.

중손 권기진씨는 직장 생활근거 때문에 서울에 나가 거주하다가 2년 전부터 이 종택을 지키기 위해 내려와 이곳을 주거지로 삼아 서울을 왕래하고 있는데, 10여년 전 이 종택에 유물도둑이 들어 이우당 이래의 고서를 모두 도난당한 일을 차탄하고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 여태껏 발간을 못했던 선대의 필사본 문집 등의 초고나마 복사본으로라도 구쳐해 돌려받을 길이 없겠는가 하며 애를 태우고 있었다.

<사진 權貞澤·이우당증가·국학진흥원 : 글 權五爚>